

2019학년도 동계 캐나다 단기어학연수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파견국가	캐나다	파견도시	밴쿠버
파견대학	Langara College	기간	2020. 01. 12. ~ 02. 02.

2. 파견대학, 수업, 필드트립 등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해 서술해주세요. - 학교는 제가 살게 된 홈스테이 집과는 거리가 좀 있는 편이었습니다. 버스로 30분 정도를 간 후 스카이트레인으로 갈아타 한 정거장을 가야 했지만, 대신 학교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전철역이 있는 건 편리했습니다. 규모는 그리 작지는 않았고, 시설은 청결하며 다니기에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분위기에 있어서 조금 놀랐던 것은, 캐나다가 다민족 국가이고 밴쿠버 지역이 특히 그렇다는 것을 알고 갔지만서도 학교 내에서 많은 민족의 사람들을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제가 정말 여러 민족들이 사는 지역에 왔구나라는 것을 몸소 느끼게 된 분위기였습니다.
수업	수업내용, 수업방법, 강사, 과제, 수업준비 등 수업 전반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 - 수업내용은 오전 수업과 오후 수업이 달랐습니다. 오전 수업은 거의 모든 수업이 정말 영어나 영어권 나라에 대해서 배우는 수업시간이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어떤 문화가 자리잡고 있으며, 이 나라에서는 특히 조심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주마다 선생님이 준비해주신 퀴즈를 친구들과 짝지어 게임 형식으로 풀어보면서 복습할 수 있는 시간도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오후 수업은 필드 트립을 가는 날도 있었고, 준비한 활동을 발표하는 수업, 게임 등을 통해 정말 영어를 입으로 말해보는 수업 형식이 많았습니다.

필드트립	수업 외에 별도로 진행된 Activity (필드트립)에 대해 서술해주세요. - Activity 종류, 내용, 준비물, 추가비용 여부 등 - 주마다 하루이틀 정도는 오후 수업이 친구들과 함께 이동하여 어떤 곳을 가서 활동을 하는 수업이 있었습니다. 박물관, 아쿠아리움, 그랜빌 아일랜드 등의 곳들을 가면 주로 조를 짜 친구들과 친해지며 활동을 하는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준비물은 이곳저곳을 다니기에 편하게 가방을 최대한 가볍게, 딱 필요한 것들만 가져가는 것입니다. 필드트립 도중에도 그렇고, 끝나고 나서도 웬만하면 가방이 가벼운게 도움이 됩니다. 추가비용은 대체로 간식비나 기념품 비용이 발생합니다.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현지 기후 및 유의점 - 제가 캐나다를 갔을 때는 정말 레인쿠버라는 말을 몸소 느낄 정도 정말 눈이나 비가 많이 왔습니다. 우비나 우산은 항상 구비하고 다니는게 필수였고, 날씨가 수시로 바뀔 수 있으니 시간마다 날씨를 체크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안전	현지 안전 상황 - 밴쿠버는 대부분 치안이 좋은 지역이라고 느낄 정도로 위험한 상황들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 한국과는 다른 나라이고 특히 제가 갔을 시기에는 해가 굉장히 빨리 졌기 때문에 더욱 안전에 신경을 쓰고 다녀야 했습니다. 또한, 한국과는 다른 문화로 제일 많이 놀란 것이 캐나다의 대마초를 피는 것이 합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다운타운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거리를 걸을 때 낯설고 불쾌한 냄새가 나는 거에 많이 당황했고 정말 문화가 많이 다르다고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숙소	홈스테이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전반에 대한 평가 - 제가 지낸 홈스테이 시설은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많은 집이었습니다. 부부가 유일한 홈스테이 가족이었고, 넓은 침대와 기본적인 가구들이 있는 방과 좋은 화장실을 저 혼자 썼다는 점이 제일 좋았습니다. 또한, 무엇이든 웬만한 것들은 홈스테이 아줌마께 물어보면 해결해주셨다는 점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아무리 좋은 요건의 집에서 지내는

	거더라도 어떤 집이든 그 집에서 지켜야 할 규칙, 특히나 좀 특별한 규칙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지내던 곳은 가스레인지에 요리가 금지되었고, 물론 한번이기는 했지만 홈스테이 아줌마께서 자신의 물건들에 대해서 엄격하게 관리하시는 분이라 이 이유로 허락없이 제 방을 들어오셨던 적도 있었습니다. 물론 사과를 하고 상황설명을 하셨지만, 처음에 알아차렸을때는 많이 놀랐습니다. 그러니 꼭 홈스테이 가족들과 특별히 지켜야 할 규칙이 있다면 꼭 함께 얘기하고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식사	학교식당 (◯) 외부식당 (◯) 기타 (홈스테이에서 싸준 음식들) 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 - 아침은 주로 홈스테이 집에서 빵과 커피 등으로 해결하고 등교했고, 점심은 학교식당에 위치한 스타벅스나 팀홀튼 같은 카페를 이용하거나, 홈스테이에서 싸준 점심을 먹었습니다. 메뉴는 주로 저녁에 먹다남은 음식들이나 홈스테이 가족이 준 컵라면이나 전자레인지에 돌려먹는 음식 같이 간단히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었습니다. 저녁은 홈스테이 가족과 먹을 때도 있었지만, 거의 모든 저녁을 외부식당에서 해결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 식사 문화 중 가장 놀란 것이 캐나다를 저녁을 집에서 먹을 때 먹는 음식의 종류가 굉장히 간단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로 한두가지의 음식을 해서 서로의 접시에 덜어먹는 것이 일반적이고, 양을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적당히 먹습니다. 그래서 홈스테이 가족에게 부탁해서 양을 조절해서 먹었습니다.
교통	시내교통 관련 - 밴쿠버에서 가장 많이 이용했던 교통수단은 스카이트레인이라 부르는 전철과 버스였습니다. 이 두가지 모두 유의사항을 숙지한다면 학교 측에서 제공해주는 컴패스 카드라 부르는 교통카드로 이용가능해 교통 면에서는 특별한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항목	비용(원)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190만원	
유심	5만원	
쇼핑, 식비 및 기타 비용	60만원	
합계	255만원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

- 제가 캐나다에 다녀온 후 느꼈던 반드시 꼭 준비해야 할 사항들이나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들을 모두 넘버링하여 적어보았습니다.

1. 캐나다에서 왕복으로 비행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긴 편이니, 편의를 위해서 꼭 준비해야 할 것들은 꼭 구비할 것 (목베개, 편한 옷, 화장X 등)
2. 의외로 관광을 위해 하루종일 걸을 일이 많으니, 꼭 운동화나 신기 편한 신발을 준비할 것
3. 샴푸나 바디워시와 같은 화장실용품들은 많은 양이 필요치 않으니 적당히 가져갈 것
4. 캐나다 3주 동안 쇼핑한 물품들을 담을 공간이 필요하니 꼭 캐리어의 반을 비워가거나 가방을 구비할 것
5. 날씨에 따라 다르고 캐나다가 한국보다 춥진 않지만, 그래도 겨울에 밴쿠버를 간다면 따뜻하게 입을 옷이나 신발은 챙길 것 (저는 날씨가 좋지 않아서 더 그랬지만, 혹시나 해서 챙겨간 겨울용 부츠를 굉장히 잘 챙겨 신었고, 내복도 매일 챙겨있었습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 저는 캐나다에서 어린시절을 지내 본 경험이 있었지만, 그런 저에게도 캐나다는 아직 배울게 많고 느낄 것도 많은 나라였습니다. 영어와 관련된 경험들 뿐만 아니라 저는 사회생활에 있어서 또 하나의 새로운 경험을 하고 왔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사람들은 만나고 같이 여행하며, 비록 3주 짧을수도 있는 기간이지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고 노력하며 서로를 도와주고, 한국 학교 수업들에서는 잘 느끼지 못했던 개방적인 수업환경에서 수업을 듣고 활동을 하면서 얻을 것들이 많습니다. 정말 영어 밖에 사용할 수 없는 상황들에 많이 놓이게 되면서, 반강제적이었지만서도 영어를 말해보려고 노력해보면서 영어 실력도 물론 늘었을 수 있지만, 더 확실한 건 영어를 말할때의 자신감은 확실히 키워졌다는 것입니다. 영어는 많이 써보고 말해보면 는다는 말처럼, 저에게는 그런 환경에서 3주를 지내면서 영어 실력은 물론, 그 이상으로 많은 것들을 얻어가는 3주였습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필수)

	
홈스테이 집 전경	Capilano Suspension Bridge
	
스탠리 공원에서 본 풍경	하버 타워와 캐나다 버스
	
빅토리아 아일랜드에서 간 국회의사당	그랜빌 아일랜드